

[목회자 말씀] 새로운 피조물

2019. 11. 8. 이현래 목사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고후5:17)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하겠다. 계시록 21장에 보면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계21:1,2)라고 했다.

그리고 난 후에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계21:5)라는 말씀이 나온다. 새 예루살렘이 하늘로부터 내려오니까 만물이 새로워졌다는 말이다.

결국 교회이다. 교회가 이제 땅에서의 교회가 아니고 하늘에서의 교회가 잘 단장되어 내려온다는 뜻이니까 하늘에 속한 교회이다. 땅에서 시끄럽던 교회가 아니고, 하늘에서 잘 단장된 교회이다.

우리는 다 땅에 속한 사람들이었는데 부르심을 받아서 그리스도의 신부로 단장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신부로 단장된 교회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교회이다. 그 교회가 올 때, 모든 것이 다 새로워진다는 뜻이다. 다르게 말하면 교회가 새로워지면 모든 것이 새로워진다는 말도 된다.

이 땅이 새로워질 수 있는 방법은 하늘로부터 새로운 것이 내려와야 새로워지지 땅의 것은 아무리 뒤적여도 땅이다. 똥을 아무리 뒤적여도 똥이지 뒤적인다고 짜장이 되겠는가? 하늘에 속한 교회가 땅에 내려와야 땅이 아름다워진다는 뜻이다.

이것을 고린도후서에서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고후5:17),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체대로 알았으나.”(고후5:16)라고 한다. 그리스도라고 해도 알기를 육체대로 알았으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마16:16)하기도 하고, 또 어느 때는 도망치기도 하며 뒤죽박죽 하는 것은 모두 땅에 속한 것이다.

그런데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나타났다는 말은 주가 그리스도가 됐다. 부활했다는 말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가 다시 살아났다는 말이다. 그런데 어떻게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가? 부활안에 살아나는 것이다. 어떻게 다시 살아나는가? 어떤 모양의 사람으로 살아나는가? 이것이 사람들의 관심이다. 그런데 어떤 모양의 사람인지는 아무도 모른다. 부활 안에서 그는 나타나신 분이니까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가 나타날 수 없다.

그리고 부활안에서가 아니면 우리가 새롭게 만나지지도 않는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부활은 교회 안에서 나타난다고 하니까 세상에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부활이 만일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육신적인 것이라면 세상에도 있을 것이다. 그런데 세상에는 부활이 없고, 오직 교회 안에서만 부활이 있다.

그리고 부활안에서만 그리스도가 나타난다. 부활안에서만 십자가에 못 박혔던 그 분이 나타나니까 우리의 삶과 밀접한 관계, 불가분의 관계를 갖고 있다. 예수님이 부활한 것이 세상에서 부활한 것이 아니고, 교회 안에서 부활했다. 교회 안으로 부활했다. 부활안에서만 그분을 만날 수 있고, 부활 밖에서는 그분을 만날 수 없다.

그분이 어디 있던 분인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은 그분이다. 참 신기한 세계이다. 열그제까지 십자가에 못 박혀서 뛰어내리지 못하고 죽은 분이였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분이 살아났다는 것이다. 다시 나타났다는 것이다. 그것은 세상에 나타났다는 말이 아니고, 교회 안에 나타났다.

우리가 부활하신 그분을 만나려면 십자가에 못 박혀 뛰어내리지 못하고 죽은 그분 안에 있어야 한다. 그분과 별개의 사이라면 따로 그분을 만날 수 없다. 그분과 함께 우리가 부활하는 것이고, 그분과 함께 다시 나타나는 것이다.

말이 좀 애매한 것 같은데 이것이 어쩔 수 없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그분이 생생하게 있다. 못 뛰어내렸다고 말한 이유는 아주 생생하게 말하려고 한 것이다. 그냥 죽었다고 하는데 잘 안 믿는다. 믿는 것 같은데 사실은 못 믿는 것이다. 그런데 뛰어내리지 못한다는 말을 내가 꼭 하는 이유는 다른 여지를 없애기 위해서 그 말이 필요하다. 그분 안에 우리가 포함되어 있다. 다른 데는 될 포함 될 수 없다. 그러니까 내가 그분 안에 있는 것을 발견하려면 그분이 그런 분이

라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 내가 그냥 부활안에 발견될 수 없다. 내가 어떻게 부활하겠는가? 나는 부활한 일이 없다. 부활할 수도 없다. 그분이 부활했으니까 내가 그분 안에 있는 것이다. 그리고 또 그분 안에 있으니까 또 부활하신 그분을 만나는 것이지 그분 안에 없는 사람이 그분의 부활을 만날 수 없다. 그분의 죽으심과 우리는 하나가 되고, 또 그의 살으심과도 하나가 된다.

죽으심에 하나가 아니면 살으심에 하나가 될 수 없다. 세상의 다른 일은 죽으심에 하나가 아니라도 살으심에 하나일 수도 있다. 이것은 생명의 문제이고 영에 속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분의 죽으심에 포함되지 않고서는 그분의 살으심에 참여할 수 없다.

그분의 죽으심에 꼭 포함되어야 나는 그분의 살아나심도 다시 참여하게 된다. 바울이 그것을 말할 때 우리가 그와 함께 죽고 그와 함께 살았다고 한다. 내가 부활하신 주를 만난 적이 없냐? 나는 예수를 만났다는 것이다. 물론 다메섹에서 만난 적이 있다. 그러나 그런 것은 다른 사람도 비슷하게 있다.

물몬교를 선전하는 곳에 가보니 영화를 만들어 보여준다. 물몬이라는 사람이 기도를 하다가 산속에 갔는데 갑자기 자기에게 빛이 확 비춰왔다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났다고 시작해서 금토판 이야기가 나온다. 그런 사람이 더러 있는데, 바울이 그런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니다.

우리가 그분의 죽으심 안에 포함되어야 그분의 부활 안에도 포함되니까 새로운 것이다. 전혀 새로운 것이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새로운 것이다.

어떻게 죽은 사람 안에 산 사람이 있겠는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의 죽으심 안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죽으심 안에서는 우리가 그분 안에 있다. 다른 데는 우리가 그분 안에 안 보인다.

어떻게 오병이어로 5천명을 먹이신 그분 안에 내가 있는가? 나는 그분 안에서는 나를 발견할 수 없다. 죽은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 되어 냄새가 난다고 하는데, 그 나사로를 살린 그 속에 나를 어떻게 찾아내는가? 거기에는 내가 없다. 있을 지라도 나를 발견할 수 없다.

그런데 유일하게 내가 발견되는 것이 십자가에 뛰어내리지 못하고 죽은 그분 안에 내가 포함되어 있다. 거기가 아니고 다른데서 만나면 좋겠지만 다른데서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다 문제가 있다. 꿈에 만났다는 사람도 있고, 환상으로 만났다는 사람도 있다. 나중에 보니 다 이상한 것들이다.

하지만 그분의 죽으심 안에서 내가 그분을 만났다는 것은 확실한 사실이다. 이것은 신학자들 가운데서도 보수, 진보, 자유 할 것이 없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은 확실한 사실이라고 증거한다. 이 확실한 사실 안에 내가 발견되면 확실하다.

그분이 십자가에 죽은 일이 없다고 말하면 말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되는 것이다. 그분이 십자가에 죽었다는 것이 확실한 사실이라면 내가 그분 안에 포함된 것도 확실한 사실이다. 내가 언제 그분에게 뛰어 들어갔는가? 나는 그분에게 뛰어 들어갈 수 없고, 그분 안에서 발견될 수도 없다. 그런데 오로지 그 자리에서만 발견된다.

나는 평생을 예수를 좇아온다고 왔는데, 그 안에서 발견되는 것은 거기밖에 없다. 다른데서는 내가 발견되지 않는다. 그분이 위대하고 놀라운 분이요 신기할 뿐이지 내가 그 안에 있지는 않았다. 그런데 그가 뛰어내리지 못하고 죽으신 그 자리에 내가 있더라.

이제는 내가 어디 예수를 찾아다닐 필요가 없다. 모시려고 애쓸 필요도 없다.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데 어떻게 내가 따로 모시겠는가? 옛날에 왜 내가 그분을 마음속에서도 모시려고 했는데 안 되었던 이유를 알게 되었다. 그때는 왜 그것이 안 되었는지 그 이유를 몰랐다. 이렇게 내가 소원을 하면 그분이 내안에 하루라도 머물러 있으면 좋겠는데 안 되었다. 어떤 사람은 하루나 이틀은 될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계속적으로 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이제는 내가 그 안에 있으니 내가 어디로 가면 갔지 그분이 어디 다른 데로 가겠는가? 내가 요동을 치면 치지 그분이 요동을 치겠는가? 내가 있는 자리가 안전하다. 바람이 불면 나뭇가지가 흔들리기도 하고, 태풍이 오면 집이 무너지기도 하지만 땅은 그대로 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

있도다.”(고후5:17)

그 새것이 우리가 닦아서 새로워지는 것이 아니다. 녹슨 것은 닦아 놓으면 새것 같이 보이지만 금방 또 녹이 슨다. 똥은 뒤적여도 또 똥이다. 아무리 씻어 놓아도 똥이다.

불교 방송을 들으니까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데 수양이다. 어떤 경지에 이르기 위한 끊임없는 수양이다. 유대인들의 율법은 사회적인 관계를 위해서 주어진 것이다. 혼자 있으면 율법이 필요가 없다. 아브라함이 혼자 있는데 율법을 주겠는가? 이삭이 혼자 있는데 율법을 주겠는가. 200만이나 되는 사람이 광야에 나오니까 법이 없으면 못사니까 주어진 것이다. 가나안에 가서 나라를 세우니까 역시 법이 필요하다.

그 법은 유대인들을 지탱하게 하는 국가를 지탱하고 사회를 지탱하게 하는 법이 되었다. 개인에게 준 법이 아니다. 그런데 불교는 그것이 아니고, 개인의 수양을 위해서 일생을 수양한다. 자기들대로 어떤 선이 있어서 경지가 있어서 그 경지를 찾아 일생을 수양한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단번에 해결된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왜냐하면 죽은 사람 안에 있으면 수양 할 것이 없다. 예수님 같은 분이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이 다 없어지고 뛰어내리지 못한 사람으로 딱 남았는데, 어디를 또 닦고 쓸고 하겠는가? 무엇을 수양하겠는가? 수양할 것이 없다. 하나님이 창조해주신 그 자리이지 수양해서 만든 것이 아니다.

사람은 원래 자기 위치를 잃었기 때문에 끊임없이 수양을 하려고 한다. 뭔가 이것이 아닌 것 같으니까 그것을 씻어내기 위해서 수양을 해야 한다.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는 이제 아닌 것이 아무것도 없다. 없어질 것들은 다 없어지고, 오직 하나님이 창조한 그대로 남았다. 말한다면 그것은 수양이 끝난 자리이다. 그런데 수양해서 된 일이 아니다.

그분의 죽으심 안에 내가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는 나는 더 이상 수양이 필요가 없는 사람이다. 사회적인 관계를 위해서는 우리가 여전히 문제가 있기는 있다. 그렇다고 해서 도둑질을 그냥 하는데 그 사회에 살겠는가? 나쁜 짓을 그냥 하고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그냥 살겠는가? 내가 남과 같이 살려면 나도 그 사람에게 해가 되지 않아야 되고, 그 사람도 나에게 해가 되지 않아야 한다. 이것은 어디

가도 당연한 일이다.

우리 본질에 있어서 내가 어디에 있느냐? 다 없어지고 본체만 남은 그분 안에 내가 있으니까 거기는 더 손덜 것이 없다. 그것이 새것이다.

그러면 옛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지어주신 것에 무엇을 덧칠해 놓은 것이 옛 것이다.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것에 무엇을 입히고 덧칠하고 그것이 옛 것이다.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고 모든 것이 있지만 그것이 다 옛 것이다. 옛것 속에는 시끄럽다. 옛것들이 만나면 시끄럽다. 새것들이 만나면 시끄러울 일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구속으로 시작된다고 할 수 있다. 부르심은 구속이 아직 안되어도 되지만 교회로 건축될 때는 구속 안에서만 건축이 가능하다. 구속이 없으면 건축이 불가능하다.

오늘날 교회 문제가 그것이다. 구속이 없이 교회를 건축하고 있는 그것이 문제이다. 그 구속에 대해서 신학자들의 견해를 대강 검토해보니까 구속이 아주 애매하다. 공부 많이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누구 하나 그 구속에 대해 분명하게 한 사람이 없다.

그중에 킬빈이 제일 확실하지만 어떻게 그리스도의 구속 안에 참여하는가 하는 문제에 오니까 성령으로 넘어가버린다. 성령에 의해서 우리가 그분의 구속을 맛보게 되고, 성령에 의해서 그분의 구속에 참여하게 된다고 하니까 막막해진다. 그러려면 사역이 왜 필요한가? 사역은 누구나 볼 수 있도록, 알게 하는 것이 사역이다. 보이지 않는 것을 보게 하는 것이 사역이다. 믿을 수 없는 것을 믿게 하는 것이 사역이다.

그런데 성령에 의해서 된다고 하면 하나님이 다 해야 되지 우리가 할 것이 아무 것도 없다. 잘 모른다는 뜻이다. 다른 사람은 그만큼도 이야기한 사람이 없다. 이번에 보니까 칼빈은 꼴통인줄 알았는데, 그것이 아니고 대단한 사람이다.

구속 없이는 교회 건축이 불가능하다. 벽돌이 있어야 집을 짓는다. 다른 재료가 있어야 집을 짓지 재료가 안 되었는데 어떻게 집을 짓겠는가?

사람의 자리로 돌아와야, 인간 본래의 자리로 돌아와야 연합이 가능하지 본래의

자리로 돌아오지 않고는 연합이 불가능하다. 아무리 연합하려고 해도 안 된다. 하나님이 만드실 때는 연합해야 완전하도록 만들어 놓았다. 그런데 다른 것을 먹고 와서 연합을 하려고 하니 되겠는가? 연합하려고 하면 더 갈라진다. 교계에서 에큐메니칼 운동을 하지고 하니가 둘로 갈라진다. 차라리 연합하지 않고 있는 것이 낫지 연합하려고 하면 더 갈라진다. 바벨탑이 우리가 흠어짐을 면하자고 하니가 끊어져 버린다. 재료가 안 되기 때문이다.

왜 100층 건물이 가능한가? 재료 때문이다. 우리는 나무로 밖에 건축을 해보지 않아서 기껏해야 2층이다. 우리는 못을 전혀 안 쓰고 2층까지 짓고, 일본 사람들은 못을 쓰기 때문에 3층, 4층 목조 건물로 짓는다. 그런데 그것이 얼마나 가겠는가? 철근 콘크리트가 나와서 100층까지 지을 수 있는 것이다. 재료문제이다. 요즘 공학도 재료문제이다. 이론적으로는 다 가능한데 재료가 없으면 만들어 내지 못한다. 재료 공학과과 따로 있다. 재료가 없으면 그만한 물건을 못 만드는 것이다.

사람이 안 되면 절대로 더 이상의 교회가 나올 수 없다. 사람만큼, 사람의 수준만큼 교회의 수준도 결정된다. 절대로 교회를 따로 만들 수 없다. 교회는 이런 것이라고 해서 만들 수 없다. 나된 것 만큼이고, 사람된 것 만큼이다. 그것이 얼마나 확실한 일인가! 하나님이 창조해 놓은 세계가 얼마나 정확한 세계인가.

연합을 해야 생육하고 번성한다. 모든 만유가 연합을 통해서 생육하고 번성한다. 사람만 그런 것이 아니고 만유가 다 그렇다. 생육하고 번성하려면 연합을 해야 되는데, 연합을 하려면 하나님이 연합을 하도록 지어놓은 그 자리에서 연합이 가능하지 하나님이 지어놓지 않은데서 연합이 가능하겠는가? 도로 바벨탑이 되고, 도로 바벨론이 된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고후5:17) 이 말이 얼마나 기쁜 말인지 모른다. 우리가 어떻게 무슨 행동을 해서 무슨 수양을 해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겠는가? 그것은 수양으로 될 수 있는 일이 못된다. 예수의 죽으심 안에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 내 노력으로가 아니고, 그분이 죽으심 안에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다.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 이 말이 얼마나 좋은지 모른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너무 좋은 말이다. 이것은 완전한 승리다.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체대로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이같이 알지 아니하노라.”(고후5:16) 이것이 완전히 벗어난 것이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고후5:17,18)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과 화복이 불가능하다. 구속 없이는 하나님과 화복이 불가능하다. 바르트는 구속을 넘어가버리고, 화복의 하나님으로 넘어가 버린다. 그런데 화복을 하려면 구속이 없이는 화복이 불가능하다. 어떻게 구속 없이 화복이 가능한가? 하나님은 자기가 지으신 사람밖에는 모른다. 내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했다고 하면, 내가 도무지 너를 모르겠다는 것이다. 자기가 짓지 않은 것은 모른다.

짐승들이 자가가 낳지 않은 새끼는 모른다. 사람이 그것만도 못하다. 하나님은 자기가 지으신 사람밖에 모른다. 아무리 별짓을 다해도 소용이 없다. 하나님은 사람인지 개인지도 구별을 못하겠는가? 사람을 지었다. 사람과 연합하기 위해서 사람을 지었으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알아본다. 아무리 내가 별짓을 다해도 하나님은 알아본다.

여자 못 알아보는 남자 있는가? 여자인지 남자인지 모르는 그런 남자가 있는가? 연합할 것이니까 척보면 여자인줄 안다. 여자도 마찬가지로이다. 남자를 보면 남자인줄 알지 남자인줄 모르는 여자가 있는가? 세상에 그런 일은 없다.

하나님은 자기가 지은 사람 외에는 다른 것은 전혀 모른다고 생각해야 된다. 물론 상대해서 말도 하지만 자기와 연합할 사람은 딱 자기가 지은 그 사람밖에 없다. 하나님이 나를 알아보아야 하는데, 예수 안에 있는 나밖에는 모른다. 그분 안에 있는 나 외에는 하나님이 모르신다. 별짓 다해도 안 된다.

기도하면 된다고 하는 것은 정말로 잘못된 말이다. 개가 기도한다고 사람과 연합이 되겠는가? 소가 기도한다고 개하고 연합이 되겠는가? 기도하면 모든 것이 다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것도 큰 잘못이다. 기도할 사람이 기도해야 되지 기도안할 사람이 기도하면 그것도 시끄럽기만 하다.

제자들이 얼마나 진실했는가? 예수님이 기도하면서 나와 잠시 깨어 기도하자고 하니까 자고 있었다고 한다. 왜냐하면 그 기도가 자기들이 할 기도가 아닌 것이

다. 예수님이 기도하는 것을 들어보니까 도무지 자기들이 할 기도가 아닌 것이다. 자는 것이 정말 진실한 사람들이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마6:9)라고 기도 하는데 자기들이 할 기도가 아니다. 그리고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눅 22:42)라고 하는데 그것은 자기들이 할 기도가 아닌 것이다. 하지 않아야 맞지 거기서 소리 지르면 기도가 되겠는가? 성경을 보면 참 진실하다. 사도들을 보면 어리석은 것 같은데 진실하게 어리석다. 우리 같으면 거기서 ‘주여!’ 할 텐데 자고 있었다. 세 번이나 자고 있었다고 한다. 그런 사람들이니까 사도가 되었다.

하여간 하나님께서 아시니까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한 것이다.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갈4:9) 이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고, 또 우리 인생을 명확하게 하는지 모른다. 내가 아무리 하나님을 안다고 해보았자 세발의 피지 얼마나 알겠는가?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아신바 되었다고 한다. 하나님이 나를 아시면 아주 확실하게 아는 것이다. 그래서 구속 안에 있는 사람은 모든 일이 밝아지고 명백해진다. 지금까지 성경에 있던 모든 일이 명백해진다.

옛날에 이 말을 좋아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고후5:17) 그때는 그때대로 좋아했다. 지금 와서 생각하니 그것은 초롱불이나 마찬가지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보니까 그때는 초롱불을 켜고 본 것으로 생각된다. 성경구절 하나하나도 아주 명백하게 알아진다. 여지가 없이 알아진다. 신기하다. 성령만 구하고 보여주옵소서, 알게 해주옵소서, 하니까 헛것을 본다. 헛것 본 사람이 얼마나 많은가?

어떤 사람은 기도하다가 응답을 받았다고 한다. 무슨 응답을 받았느냐고 물어보면 대부분은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나는 너만 사랑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한다. 그런데 그 말 한마디에 묶여서 사람 말을 안 듣는다. 자기가 하나님과 직통한다는 것이다. 이 사람들은 정말 고치기가 어렵다.

내가 몇 사람을 상대해보았다. 하나님 음성을 들었다는 사람들이 있으면 나는 아예 눈을 감아버린다. 나와는 인연이 없다고 생각한다. 씨가 안 먹힌다. 하나님과 직통하는데 사람 말을 듣겠는가? 이상하게 되어서 사람이 사람되는 것처럼 쉬운 일이 없지만 사람이 사람되는 것처럼 또 어려운 일이 없다.

내가 그렇게 말한다. 개가 개 되는 것보다 쉬운 일이 없고, 소가 소되는 것보다 쉬운 일이 어디 있느냐? 벼가 벼되는 것보다 쉬운 것이 어디 있느냐? 생명은 그

렇다. 그것이 어려운 일이 아니고, 당연한 일이기 때문에 벼는 심어 놓으면 벼가 열린다. 꼭 벼를 열려야 되겠다고 거기다 기도를 한다고 벼가 되겠는가? 밭에 벼를 심어놓고 아끼바리처럼 맛있는 벼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한다고 되겠는가?

제주에는 논이 하도 없으니까 밭에 벼를 심어놓은 데가 있다. 벼가 나오기는 나오는데 쌀이 맛이 없다. 수도작이기 때문에 물이 있는데서 키워야 되지 물이 없는데서 키우면 맛이 없다. 옛날에 쌀이 하도 귀할 때, 밭에도 심을 수 있는 품종이 개발이 되었었는데 쌀이 맛이 없어서 결국 다 없어졌다.

사람이 사람되는 것처럼 쉬운 것이 없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는 것보다 쉬운 것이 없다. 다 있는 대로 되는 것이다. 사람되는 것이 어려우면 길을 잘못 든 것이다. 내가 사람이 되고 싶은데 잘 안 되면 길이 잘못된 것이지 노력이 잘못된 것이 아니다. 자기 길로 갔으면 쉬워진다. 사람되는 것보다 쉬운 일이 없다.

나는 맨 처음에 잘 모르고 한 말이지만 어느 교회를 갔는데 왜 나는 예수를 믿느냐? 사람 되려고 믿는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딱 맞다. 나는 사람되는 길만 찾았지 다른 것을 찾지 않았다. 기도 한다고 사람이 되겠는가? 수양을 한다고 사람이 되겠는가? 나는 그때 사람이 뭔지는 확실히 몰랐지만 그렇게 말한 것이 잘 했다고 생각된다.

사람되는 길로 내가 가야 다른 사람도 사람되는 길로 인도한다. 신같이 되는 길을 간 사람들은 사람들을 다 그렇기 만든다. 신기가 약간 섞인 사람으로 만든다. 신기가 섞이면 사람이 좀 신기해 보인다. 그런데 신기한 것이 아니다. 사람에게 신기가 섞이면 그것이 괴물이지 사람인가? 개가 사람처럼 말을 몇 마디 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개이지 사람이 아니다. 개는 짖어야지 개가 말을 하면 되겠는가?

사람은 꼭 사람만 되어야 한다. 그 이상도 안 되고, 그 이하도 안 되고, 사람만 되어야 한다. 사람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안 된다. 지나쳐 가버린다든지 못 미친다든지 하지 수양은 끝이 없다. 안 된다. 그런데 한방에 된다.

예수 그리스도! 모든 것이 다 있는 사람인 것 같은데 십자가에 못 박으니까 한방에 사람이라는 것이 딱 드러난다. 그 안에서 나를 발견하지 못하면 어디 가서 나를 발견하겠는가?

하나님이 지어준 나는 누구인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나는 어떤 사람인가? 그것이 간단하게 한방에 해결된다. 그것을 어디 가서 내 모습이 어떤 것인가? 하나님이 원래 나를 어떻게 창조했는가? 어디 가서 그것을 찾아내겠는가? 그래서 예수는 구속주가 되고, 구속자가 된다. 또 그분자신이 구속이 되기도 한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는 그분이 우리 구속이라고 한다. 그분 자신이 우리의 구속이라고 한다. 구속의 주님, 구속을 위한 하나님이 되는 것이다.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고후5:17)

얼마나 좋은 말인가! 얼마나 벅찬 말이다. 간단하게 하는 말이다. 복잡하게 하는 말이 아니고, 아주 복잡한 인생을 아주 단순하게 해준 말이다. 갈수록 인생이 간단해져야 한다. 갈수록 복잡해지는 인생은 잘못 간 것이다.

학문도 마찬가지이다. 처음에 배울 때는 오만 것을 다 배워야 하니까 복잡하지만 오래 한 가지를 전공하면 단순해진다. 노련한 박사가 되면 단순해진다. 모든 것이 다 그렇다. 어렸을 때는 이것인지 저것인지 구별이 잘 안 된다. 나무도 그렇고, 짐승도 그렇다. 크면 클수록 분명해지는 것이 이것은 개구나, 이것은 소구나, 이렇게 분명해지는 것이다.

사람도 맨 처음에는 정자 한 마리가 가서 난자와 붙은 것이 사람이다. 그것을 보고 사람이라고 하겠는가? 개라고 하겠는가? 모르는데 점점 사람의 모습이 드러나서 온전한 모습이 되어 나온다. 나는 애기들이 나오는 것을 보고 예쁘다고 하는데, 나는 애기들 중에 예쁜 애기를 못 봤다. 쭈글쭈글해서 찡그리고 나오는데 너무 우습다. 그런데 이것이 차근차근 맑아지면서 사람의 형체가 드러나는데, 그때 예쁘다. 하나님도 그렇지 않겠는가? 우리를 볼 때, 그래도 사람이니까 이것이 사람이 되겠네 하고 보시는 것이다.

사람되는 것보다 쉬운 것이 없다. 쉽게 사람이 되어야지 어렵게 사람이 되는 것은 이상하게 되는 것이다. 교만해지게 된다. 자기는 아무리 겸손해지려고 해도 겸손이 안 된다. 평생을 수양을 해서 뭐가 되었는데 겸손이 되겠는가? 그렇게 못한 사람을 보면 무시가 되는데 어떻게 겸손해지겠는가?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고후5:17)

이것이 단번에 얻은 은혜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해서가 아니고, 무슨 노력을 해서

아니다. 그냥 갑자기 발견한 것이다.

십자가에 죽은 예수를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는가? 다 안다. 그런데 왜 그 안에서 내가 안보였는지 모른다. 십자가에 죽은 예수 안에서 자기가 발견된 사람이 있는가? 안 된다. 분명히 예수님이 죽으셨다. 이래죽으나 저래 죽으나 죽었는데 십자가에 죽은 예수 안에서 ‘저기 내가 있구나.’ 하는 사람이 누가 있는가? 가장 내가 싫어하는 사람의 실체이다. 내가 원치 않는 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사람이다.

그냥 십자가, 십자가해서는 안 된다. 그 안에서 내가 발견되지 않고는 아무 효과가 없다. 그의 죽으심이 헛된다. 누구를 위해 죽었는지 모르겠다. 아무리 생각해도 모르겠다. 나를 위해 죽었다는 것이 도저히 나는 감이 안 잡혀서 몰랐다. 그런데 정말로 뛰어내리지 못하고 죽은 그 자리에 가니까 이제 알겠다. 나 같은 사람이 이제 쓰일 때가 왔다. 나같이 안 된 사람이 쓰일 때가 왔다. 너무 잘 된 사람은 다른 사람을 망친다. 공부도 너무 잘한 아이들이 좀 못한 아이들을 망친다. 잘 생각해보라. 세상에서는 일등 하는 사람이 필요하다. 서울대학교에 합격한 사람들은 우리나라의 영재이다. 그러면 그 밑에 영재 못된 사람들을 다 죽이는 것이다. 다 바보 만들어버린다. 세상과는 너무 다르다.

우리 형제 가운데 머리가 참 좋은 형제가 있다. 고등학생 때는 전교 일등을 했다. 의과대학을 들어갔는데 자기보다 머리가 훨씬 좋은 놈이 있는 것이다. 자기는 책을 세 번 정도 봐야 기억이 되는데, 한번 슬쩍 보고 전부 기억해버리는 놈이 있는 것이다. 나보다 머리 좋은 놈은 이렇다는 것을 알았다고 한다. 끝이 없다. 그런데 세상에는 그런 사람이 필요하다.

세상의 원리가 뭔지 알지 않겠는가? 일등주의다. 그것을 하지 않으면 이 사회에서 살아남지 못하고, 이 세계에서 나라도 살아남지 못한다. 공산주의가 왜 후퇴한줄 아는가? 평등, 평등 하다가 가보니까 한쪽이 벌써 저 어디까지 가버렸다. 우리만 지금 그 향수를 가지고 있지 세계 어디도 그런 나라가 없다. 다 해보니까 안 된다. 왜냐하면 일등주의기 때문이다. 그것을 정치로 해결 하겠는가? 세상에서는 일등이 최고이다. 일등 못하는 놈은 그 밑에 다 병신이다. 그런 줄 알고 나는 등신이라고 생각하고 살아야 된다. 잘난 척 하려고 보면 자기보다 잘난 놈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전혀 다르다. 하나님이 창조해 놓으신 그 사람들로 이루어진 나라이기 때문에 전혀 다르다. 다 연합이 가능하다. 세상에는 일등과 이등이 연합이 불가능하다. 학교에서 일등하고 이등하는 학생이 둘이 서로 경쟁한다. 암암리에 경쟁을 한다. 저놈이 몇 시간을 공부하는가를 보고, 저놈보다 한 시간이라도 더 해야 한다. 그것이 얼마나 피곤하겠는가? 저 밑에 꼴찌하고 있는 놈도 있는데, 이등 하면서 가슴을 조이고 있다. 일등 하는 놈은 또 편안한가? 항상 도전이 오기 때문에 편안할 수 없다.

아들에게 중학교 때, 일등 한번 해봐라 했더니 친구가 없어진다고 안한다고 하였다. 이등쯤 해야지 일등하면 친구가 없어진다고 한다. 열심히 했으면 일등 할 수 있는데 안한다고 했다. 세상에서 일등하려면 외롭다. 정상은 외롭다는 것이 그 말이다. 세상은 좋은 줄 알지만 그런 것이다.

하나님 나라는 얼마나 아주 간단하고 쉬운지 모른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고후5:17) 이것이 얼마나 단순하고도 시원하고 깨끗하고 쉽다. 이보다 더 쉬운 일이 어디 있는가? 이것이 은혜다. 이것이 복음이다. 우리가 나가 사람들에게 이것 하라, 저것 하라 하면 그것이 뭐가 됐든지 간에 도로 율법이다.

그런데 새로운 것을 선포해서 하나님이 해준 모든 것이 이렇게 쉽다는 것을 선포하는 것이 복음이다. 누가 잘못하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는가? 다 잘하고 싶고 다 잘되고 싶다. 그런데 그것이 안 되니까 못하고 있는 것이다. 안 되는 것은 어차피 안 되는 것이다.

기도한다고 꼴등이 일등 하겠는가? 불가능하다. 그런데 다른 세계에 들어오면 판이 달라진다. 우리가 그 판으로 인도하는 것이다. 우리가 그것을 전하는 것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그것을 선포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것이다. 하나님 앞에 오면 이렇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이렇게 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복음이다.

하나님 하신 것을 모르면 복음을 전파하려고 해도 할 수 없다. 그리고 내가 그 세계를 체험하지 못하면 그 말을 할 수가 없다. 내가 정말 완전해진 세계를 봐야 다른 사람에게 그 세계를 소개한다.

우리는 얼마나 좋은 직책을 맡았는가? 화목케 하는 직책을 맡았다. 그 안에 가

면 다 화목이 된다. 저절로 화목이 된다. 안 될 것이 아무것도 없다. 바르트는 하나님께서 화목케 하려고 세상에 오셨다고 말하는데, 그 중간에 뭐가 있어야 화복이 되지 그냥 화목이 되는가? 예수께서 죽으셨으니까 그것을 보고 화목을 한다. 그것은 하나님이 화가 풀렸다는 것인데 그것이 안 된다.

그리스도 안에 와야 화목이 된다. 그 안에 있는 것을 봐야 화목이 된다. 그 사람만이 하나님 앞에 화목이 되는 사람이고 연합이 가능하다. 알고 보면 너무 쉬운 것이다. 이제 생각하니까 너무 쉬운 것이었다.

내가 왜 예수를 모시려고 애를 썼던가? 내 안에 어떻게 예수를 모시겠는가? 안 되는데 그것을 해보려고 애를 썼다. 내가 그 안에서 발견되려고 해봤는데 어떻게 발견이 되는가? 아무리 쫓아다녀도 발견이 안 된다.

죽으신 그분 안에, 못 뛰어내리기 때문에 죽으신 그분 안에 내가 거기 있다. 그냥 '죽으심 안에는' 애매모호해서 도로 안 된다. 그냥 '죽으심 안에'라고 해서는 말은 맞지만 내가 안 된다.

이렇게 만나니까 너무 반갑고, 이런 말을 서로 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다. 이 말을 아무데나 해서는 안 되고, 통하지 않는다.